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宋 景 太
印 刷 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1991年度 組織擴大보다는 整備置重

'協會創立 22周年을 맞이하면서 돌이켜보면 웬만큼 組織網도 이룩하게 되었다. 이제는 名實相符한 內實을 爲하여 不實的 要素를 하나하나 點檢 是正하여 確固한 公益團體로서의 體制를 定立해 나가야 하겠다.

本部 및 支部 合同 點檢으로 유명무실한 分事務所 정비 바람직

十年이면 江山도 변한다고 했다. 13年前의 協會를 懷古하면 感懷가 깊다. 불과 4~50個所의 組織으로 고립무원한 상태로 하루살이에 급급한 時代…

많은 生藥業界의 사람들이 뜻을 펴보기 爲해 들어왔다가는 힘없이 물러가곤 하였다.

自古로 組織에는 人材와 財力 그리고 運用의 妙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目的이 좋다한들 화중지병에 不過한 것이다.

協會는 當時만 해도 이 세가지 要素中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離合集散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組織擴張에만 注力해 왔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 와중에서도 各地方에서는 協會脆弱性에 편승한 不美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 公益團體로서의 名譽를 실추시킴으로서 存續價値마저 위태롭게 하기도 하였다.

이제 周邊與件의 變革과 함께 10數年의 歲月이 흐르다 보니 알게 모르게 協會事情도 많은 變革을 가져왔다.

그것은 우선 일꾼들의 보충이요 둘째로는 財源의 보완이요 세째로는 運用의 妙를 살릴 機會가 주어 졌다는 것이다.

좀더 現實的으로 말한다면 人力이 2倍나 增加되었고 이 人員이 함께 자리잡고 일할 수 있는 安住處를 마련하게한 財力의 뒷받침이 造成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協會本部는 그런데로 編制를 갖추어 놓고 축적으로 生産者保護를 爲한 生藥安定基金 사용방안을 심도있게 擧論할 段階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같은 時點에서 傘下支部의 組織網은 全國的으로 擴大되어 主要地域에 2백30여개소의 分事務所를 設置 運營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실로 今昔感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尙今도 本會병의 각색한 변칙적 운영을 하거나 有名無實한 상태로 우왕좌왕 하고만 있는 分事務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本會名譽를 오손하고 있다는 자체민원이 분분하다 보니 1991年度 第22次 定期總會를 基點으로 하여 組織擴大보다는 이제는 不實整備에 注力하여 실추된 명예를 格上하고 內實化된 團體로서 對內外에 浮刻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紙面을 할애하여 부언하고저 한다. 어째던 今年은 組織整備의 해로 定하고 本部와 各支部合同으로 地域別 組織網을 再點檢하여 잘못된 點을 하나하나 是正補強 名實相符한 生藥生産團體로서의 體制를 定立하여야할 때라고 強調하고 싶다.

89년産 가마당 5만4천5백원
정부 통일米값 10~20% 인하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25일부터 정부통일미(87~89년産) 방출가격을 10~20%인하하고, 작년에 사들인 정부보유 일반미를 새로 방출하기로 했다.

또 정부비유통추진을 위해 4㎏들이 포장을 새로 판매하는 한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양곡도 정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 양곡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이 방출가격이 내림에 따라 정부통일미소비자가격은 ▲89년産이 80㎏가마당 종전 6만1백원에서 9·3%인하된 5만4천5백원 ▲88년産은 15·5%내린 4만9천원 ▲87년産은 18·4% 내린 4만4천5백원에 팔리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90년産 정부미도 일반미는 방출가격 가마당 9만2천원, 통일미는 5만5천5백원으로 책정, 일반미는 25일부터 무제한 방출하되 통일미는 추후 방출시기를 결정해 내놓기로 했다.

連載 韓方순례 〈21〉

〈續〉

귀를 통한 진단법에 확실히 옆길로 흐르듯 하지만 청각의 작용과 이의 효용성도 알려 더듬고 나아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믿어 사족을 붙이는 것이다.

「몸 전체로 듣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고도로 발전한 심령학(心靈學) 계통에서 말하는 즉 텔레파시를 통한 어떤 대화 등의 상황을 여기서 들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고도의 어떤 수련으로 청각자체와 직감을 발달시켜 텔레파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흔히 통속적인 투렵지에서 나오는 천리이(千里耳)가 아니라도 선의개조(開祖)인 달마선사가 도통했을 때 문지방 밑에 기어가는 개미소리가 소가 지나가는 것만큼 크게 들렸다는 일화도 있다. 이는 수도를 통해 다시 말하면 어떤 도입법을 통해 우리의 기관은 상상 이상으로 그 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맹인과 귀머거리 중 누가 더 불행할까 등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귀중한 귀가 우리의 인체조직의 유기성에 의거하여 어느 내장기와 연관이 되어있을까를 우선 알아야 한다.

귀는 모든 내장기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특히 신장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신장이 나쁘면 귀의 능력은 저하된다. 즉 귀의 기능부진은 신장장애의 상대증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경맥 365락이 이 귀를 통과하기 때문에 순환경로에 이상이 생기면 청각이 큰 장애를 일으킨다.

귀를 통한 진단에는 귀의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진단법과 귀의 병증을 관찰, 이를 통하여 제반질병을 알아낸다든가, 병 중의 증후를 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후자가 본 영역이다.

문진은 제2편에서 대략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리라 믿는 바 전문진의 효용을 살리기 위해 얼마만큼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소음공해와 신체의 부조

흔히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소음공해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서울의 경우 도심의 소음도는 70폰에서 80폰까지 오르는 모양이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신체기관의 민감도가 둔화되었다는 뜻이고 이 둔화는 신체장애의 한 가지 현상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카바레 등 연예장의 악사들은 연주가 끝나도 계속 이명이 뒤따르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술 아니면 수면제의 신세를 지는데 이것이 습관이 될 때 몸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간다. 전쟁터와 비슷한 공해 수라장 예를 들면 공장주변 도로와 철도연변 광장 등의 평면적은 점점 확대 일로를 걷고 있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우기 젊은이들이 모이는 다방 등의 소음은 실로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을 마비·뇌살시키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욕구불만에 차있는 것이 나라의 젊은이라면 실로 앞날이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공포의 소음공해에서 우리의 건강을 최소한 방어하고 유지시키는 길은 무엇일까?

첫째는 소음자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적인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등을 통한 사회적 고발도 불사해야 한다.

둘째는 소음지역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때는 공해 때문에 손상을 받는 여러 장기에 대한 보강이 되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즉 외계로부터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음허를 다스리는 한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바른 호흡법과 맥합법(脈合法)을 통한 도인법을 행하여 종래의 의료적인 치료만으로 불가능한 이 소음에서 오는 신체의 부조를 단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公示事項

91年度 第1次 理事會召集 公告

根據: 정관 제11~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第1次 理事會를 소집하오니 필해 參席하시기 바랍니다.

日時: 1991年 3月7日(木) 13時

場所: 中央本部 사무실

議案:

一、1991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編成(案) 審議

一、1990年度 事業實績 및 收支決算 報告書 審議

一、其他 本會 第22次 定期總會에 부의할 案件 준비

1991年 2月 20日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長